

'바다의 로또' 고려청자 도굴해도 판매불가

도굴꾼들 사이에서 일명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고려시대 도자기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실제 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에서 체계적으로 보관되는 유물과는 달리, 서해안의 갯벌 등에서 도굴된 도자기는 파도의 침식과 풍화 등으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가격을 매기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법으로 도굴한 도자기를 구입하려는 구매자가 극히 소수인데다 경찰과 문화재청이 적극적인 도굴 문화재 단속을 펼치고 있어 대부분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16일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과는 서해안에 매장된 고려시대 청자 등 문화재를 도굴한 혐의(매장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이 도굴한 유물을 시중에 판매하려 한 유통업자 이모(52)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달 간 충남 태안군 한갯벌에 매장된 고려시대 청자 등 도자기 9개를 삽과 호미 등을 이용해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렇게 도굴한 도자기를 이씨 등에게 판매해달라며 넘겼지만 최근까지도 판로를 찾지 못해 실제 수입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도자기를 판매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수집가 대부분이 불법으로 도굴한 문화재를 구입하는 것을



고속도로 갓길에서 탑차에 끼인 트럭 70대 트럭 운전자가 사망했다.

16일 오후 1시35분께 전북 원주~순천 간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1트럭이 2차 탑차 사이에 끼어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김민근 기자

보존상태 좋지 않아 가격 매기기 어려워 전북경찰, 불법 도굴·판매 일당 불구속 입건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실제 이들은 전북과 전남, 충남의 재력과 문화재 수집가를 상대로 1년 넘게 "서해안에서 찾은 도자기를 팝니다"는 광고를 했으나 판매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도자기 판로가 막히자 지인

들을 상대로 도굴한 문화재를 보여주며 "사업에 투자하면 더 좋은 유물을 찾아주겠다"며 자금을 모으려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결국 수중잠비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도자기를 도굴한 이들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도굴한 도자기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은 되나 보존상태가 열악한데다 구매자가 없어 유통에는 실패했다"며 "일부 도굴꾼들이 고려시대 청자 등을 찾아 서해안에 몰리고 있지만 대부분 유통과정에서 검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16일 현재까지 10건의 문화재 도굴을 적발하고 19명의 도굴꾼을 붙잡았다.

채팅녀 가방 훔친 30대 형사입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의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9시55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마트 앞에서 B(36·여)씨가 차 안에 놓고 내린 현금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커피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어간 틈을 타 자신의 BMW 차량을 불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자 만원을 건네며 "마트에 가서 커피 좀 사달라"며 차에 가방을 놓고 내리도록 유도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풍남문 타종소리, 광복절에 다시 울려 퍼진다

시, 뒤틀린 기동 부재 교체·하인방 신설 등 구조보강 병행

풍남문(보물 제308호) 종각 기동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 잠시 종소리를 들지 못했던 완산종이 오는 6월 이후 다시 울려 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제야행사 등을 통해 풍남문 타종소리를 들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초 발견된 서편 종각의 기동 뒤틀림 현상 등 안전문제로 사용을 중지했던 풍남문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풍남문 종각은 종의 무게를 지탱해온 기동 목재의 뒤틀림으로 인

해 초석 상부면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또, 인방재와 홍살에서도 뒤틀림이 일부 확인됐다. 이는 기동의 경우, 2톤에 달하는 완산종이 36년간 매달려왔고, 해마다 제야 타종식 등을 치르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뒤틀린 기동 부재는 교체하고, 주초석 상부면을 후처리 후 정다듬해 기동 이탈을 방지기로 했다. 또, 하인방을 신설하는 등 구조보강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초까지는 종각보수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8월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1년 여만에 풍남문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된다.

박화심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도심에 자리한 풍남문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이자, 옛 전주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재 원형복원 및 보존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남문은 성문 위에 전후 2열로 4개씩 세운 누각의 1층 기동이 2층의 변주로 연결되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돼있다. 완산종은 지난 1977년 시민의 성금으로 제작돼 1980년부터 풍남문 종각에 매달려 있다.

/김민근 기자

청소년상담센터,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상호협력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16일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실행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1차 실행위원회(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 및 위원소개에 이어, 전주시CYS-Net 소속 기관 및 사업소개 진행됐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의 건 △2017년 공동사업 추진의 건 △회의의 진행 장소의 건 등의 안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솔루션사례회의에서는

참여위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또 올해로 5회째 진행되는 공동사업을 오는 9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전주시 많은 청소년들이 힘을 얻고 즐길 수 있도록 동아리발표 등 청소년축제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CIS-Net 실행위원회 소속 기관 이용 방법과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U-20월드컵 대비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

전주시가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에 대비해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해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15일 현대해상 빌딩 5층 회의실에서 시 산하 도로굴착 및 건축·건설공사, 공원, 도로 및 교통시설 공사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건설공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U-20 대회기간 동안 출전 국가 선수단 대회 관계자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쾌적한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대회 종료시까지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고강도 기동감찰을 실시해 건설공사로 인한 각종 시민 민원과 관광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U-20 월드컵 대비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 시행시 주민 홍보를 위한 공사안내판 설치 △환경관리대책 △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안전계획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한 미관개선 등 건설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각종 건설공사 관계자들과 대회의 장을 마련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도로비우기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 가동

전주시가 걷고 싶은 도시 실현을 위해 인도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는 도로비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도위의 전화 부스와 가로 등 교통시설물, 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16일 대우빌딩 4층 회의실과 팔달로에서 시 산하 도로관련 공무원과 한전과 KT, 경찰서, 우체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비우기 T/F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도로비우

기 시범사업 구간인 팔달로(전동성당에서 시청입구 대신증권 사거리까지) 인도 위에 설치된 교통신호물(신호기, 제어기)과 각종 표지판, 전화부스, 우체통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로비우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도로비우기 대상 시설물 선정과 합동조사를 통한 시설물 통합가능 여부, 시설물 통합방법 절차 사전협의 등을 위한 팔달로 현장답사도 진행했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로비우기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